

“ 과분한 은혜 ”

■ 이종윤 원로목사

무거운 징벌을 받아 마땅한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지혜로운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은 그가 저지른 행위가 이해할 만하고 용납 받을 만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은 저주 대신 사랑의 선물로 응대하신 것이다.

다윗왕의 비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요압 장군이 백성 앞에서 그의 죄를 폭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암몬 족속을 쳐서 승리의 기세를 잡아 놓고, 다윗에게 마지막 깃발을 꽂도록 한 것은 다윗에게 무슨 덕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주어진 과분한 대접이요 은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몸 되신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을 하던 사울을 바울로 부르시어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은 바울에게 본성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좋은 습성이나 귀중한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먹지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받고도 뻔뻔스럽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당장의 죽음 대신 메시아 예언을 주시고 가족 옷을 지어 입혀 주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심의 구속의 약속을 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상숭배와 주색잡기와 도박에 빠져 있던 이 나라 백성들이 현해탄의 물고기 밥이 되어도 할 말이 없을 터인데 빼앗겼던 나라를 아무 공로없이 미국을 비롯한 우방나라들에 의해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와 번영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주시고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어 복음 선진국의 자리를 매김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충성스런 일꾼으로 여기시어 목사로, 장로로 각각 직분까지 주신 것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들에게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분에 넘치는 면류관이 씌워졌다면 그 면류관은 내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 당연히 24장로들처럼 내게 씌워진 면류관을 벗어 주님 발 앞에 놓아야 할 것이다. 많은 면류관들을 쓰고 계신 주님을 언젠가 만나 뵈게 될 때 가장 번쩍이는 주님이 쓰고 계신 면류관이 내가 받았던 것이 되면 얼마나 기쁠까. 주님 머리에 씌워 드릴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

은혜는 열락을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보답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들은 망국의 한에 통곡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뜻있는 청년들은 풀무불 속에 던지움을 받으면서까지 금신상에 경배를 거부했다. 망국의 원인이 우상숭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한 그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였다. 선지자 에스라는기가 막혀 옷을 찢으며 통곡을 했다.

조선 왕조를 망하게 한 것은 당쟁과 허례 때문이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들을 반복하고 헛된 것을 섬기는 것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요 민족적 비극이다. 일반 대중보다는 그 도덕 수준이 조금은 높아야 할 사회 지도자들이 더 타락하고 세상 사람과는 성별되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성직자의 삶이 시궁창에 빠진 주정뱅이처럼 과분한 은혜를 받고도 행위의 빈혈증 환자처럼 보였다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역이요 배역이다. ‘주여, 이 길은 암흑을 몰아 낼 우리의 새 아침은 언제니까?’

-한국장로신문 [제 1292호] 2011년 10월 1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John 4:24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Dong Woo Park
Hymn	2
Scripture Reading	1 Cor 8:1-7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 Offering Prayer	Rev. Euichang Kim
Anthem	Congregation S
* ermon	"True Knowledge"
* Hymn	488
* Benediction	Preacher
* Lord's Prayer Song	635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전광혜(사이시애), 이은준(김혜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김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아사, 비스토판: 사지, 에녹(인도), 정상진(홍성임)필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미디카스카르, 김용진(황경해)말리우, 김영호(서형정)러시아, 허창범(한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다), 김종일(백순미)타이(노동자), 필리핀, 프란시스코 수레시, 수바스, 이경연, 일로로, 비사누(뽀도, 보다소프, 린톤, 수란존(방글라데시), 박명성(총회), 강태선, 윤영모, 이금순, 김명길(선교)
---	--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

■ 왕하 4:1-7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문제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의, 식, 주 세 가지로 귀결됩니다. 결국은 소유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소원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마음 먹은대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이제 한 해의 상반기인 6개월을 지내고 영적인 감사와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역동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근본 원인은 삶의 자리가 어수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잘 만나야 하지만 사람도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지만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없고 역동성이 없는 것은 만남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고독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의 남편은 선지학교의 생도였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빛을 준 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등장하는 엘리사는 강력한 리더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지도자로서 매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자식도 빼앗기게 생긴 비참할 가운데 빠진 여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엘리사와 같이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사랑의 마음, 축복의 마음, 믿음의 지혜를 전해주는 복음의 전권대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 고난을 감추지 말라
 인간에게 가장 힘든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정신적인 고독, 물리적인 고독, 심리적인 고독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매우 힘들게 합니다. 주님의 정신은 함께 하고, 나눠 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무언가를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본문의 여인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감추지 않고 엘리사 앞에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만난 여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각오가 생겼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얼마나?”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믿음을 확인하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흥청대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 무거운 짐을 진 자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는 짐 때문에 저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므로 영성을 회복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을 위장하지 마십시오, 약함을 위장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여인은 엘리사 앞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기와 고통을 하나님의 종에게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맹인 바디매오는 주님 앞에 나가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막 10:47-52).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말씀 속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직 복음의 감격을 심령 속에 뜨겁게 가져야 합니다.

맺는 말
 “모든 건강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시 32:6). 어려움에 처할 때 기도의 젖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목상을 많이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빛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빛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갠 길입니다. 그러므로 서울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기 위해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고통 중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안주훈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임상현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하인선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인 도 자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30:11-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3(2).....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19(시 32)...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438(495)...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엡 5:15-2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주의 뜻이 무엇일까?”... 안주훈 목사
 * 찬 송 Hymn425(217)...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42:1 인 도 자
 찬 송 25(25) 다 함 께
 기 도 김형상 집사
 성 경 삿 2:1-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보김(우는 자들)“ ... 설 교 자
 * 찬 송 251(137)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박정자 권사
 성 경 빌 2:19-30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함께 군사 된 자”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란 김양안 박수강 김복희2

설 교 서명철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박준호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김윤지	박수강	윤주일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왕하 4:2)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부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살롬 권사회 월례회 / 21일(주) 3부 예배 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2. 에스더 전도회 월례회 / 21일(주) 3부 예배 후 후문 입구(한티공원)
3. 스데반회 7월 월례회 / 21일(주) 3부 예배 후 104호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노계현(안과), 김동준(내과)입니다.
다음주 상담은 노선균(흉부외과), 정현구(치과)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
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14.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안주훈 목사(서울장신대 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결 혼

1. 양운서 군(양성경 집사, 박전희 권사의 장남)과 허효주 양(13교구 허인영 집사, 이미송 권사의 차녀) / 7월27일(토) 오전 11시 30분 더채플렛청담 6층 채플홀(421-1121) / 강남구청역(7호선, 분당선) 3-1번 출구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899명	246명	191명	1,336명	114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7/14)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7월14일	헌 금	22,287,100	
	찬양운영비		2,000,000
	교회학교운영비		542,000
	특별예배비		3,414,000
	선 교 비		200,000
	출 판 비		250,000
	복리후생비		51,800
	통 신 비		132,520
	차량유지비		135,500
	소모품비		241,220
	수도광열비		108,000
	수선유지비		49,020
	식당운영비		1,101,970
	합 계	22,287,100	8,226,030



2019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부 서	일 정	장 소	주 제	강 사
유년부	7/25(목)-27(토)	아가페타운	I am a Christian (신 6:18-19)	박미라 전도사
초등부				
중등부	7/25(목)-27(토)	아가페타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 (수23:3)	최승원 전도사
고등부				
청년1부	8/15(목)-17(토)	아가페타운	순전히 만나게 하소서 (창 24:12)	심우진 목사
청년2부				
에바다부	8/15(목)	서울교회	도우시는 하나님(시 121:1-2)	서명철 목사